

【논 문】

鄉通事 河世國과 조선의 선택 - 16~17세기 한 女眞語 통역관의 삶과 죽음 -

계 승 범*

【 차 례 】

1. 머리말
2. 임진전쟁(왜란) 중 河世國의 활동
3. 深河 패전(1619.3) 이후 河世國의 활동
4. 후금의 요동 장악(1621.3) 이후의 정세와 하세국의 죽음
5. 맺음말 : 조선의 선택

국문초록

임진전쟁(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建州女眞을 통합하여 만주 일대에 서 독자적 세력을 굳힌 누르하치는 전쟁이 끝나자 본격적인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만주 전역을 평정하고, 1616년 정초에 마침내 후금을 건국함으로써 소위 ‘명질서’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뿐만 아니라, 1618년의 요동 침공을 시작으로 중원 정복의 첫걸음을 디뎠다. 이에, 조선의 코앞에서 벌어진 명과 후금의 무력 충돌은 4반세기 넘게 지속되었고, 지정학적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 놓인 조선은 외교 문제로 고심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증차대한 시점에서 조선의 대후금 외교를 사실상 전담한 핵심 인물은 조정의 고위 관리가 아니라 灣浦 출신의 하층민으로 鄉通事란 직책을 맡고 있던 河世國(1575~1622)이라는 자였다. 그는 거의 25년 동안 만포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교섭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특별한 외교 임무를 띠고 누르하치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선을 대표해 누르하치와의 외교 실무를 전

www.kci.go.kr

* 서강대 사학과 대우교수

담하다시피 한 하세국은 1622년에 후금에 머물던 중 후금 지도부에 의해 그만 처형됨으로써, 이국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 논문에서는 향통사 하세국을 중심인물로 삼아 미시사의 접근을 시도하되, 그를 통해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질서의 격변 과정에서 조선이 처해 있던 위상과 조선의 선택이 갖는 ‘東亞史’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하세국, 누르하치, 광해군, 후금, 명, 요동, 만주, 여진, 만포

1. 머리말

조선의 코앞인 요동과 요서에서 벌어진 명과 후금의 무력 충돌은 17세기 전반에 4반세기 넘게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지정학적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 놓인 조선은 외교 문제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과 후금의 싸움이 단순히 요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전면적인 재편을 염두에 둔, 다른 말로 후금의 중원 진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알력이었기 때문이다.¹⁾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조선의 對後金 외교의 실무를 일선 현장에서 담당할 핵심 인물은 灣浦의 鄉通事로 있던 한 인물로, 河世國(1575~1622)이라 불리던 자였다. 조선사회에서 향통사란 역관 축에도 정식으로 들지 못하는 임시고용직 현지 말단 통역원으로, 해당 언어에만 뛰어나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하세국의 아내는 官婢였다.²⁾ 요컨대, 당시 세습 양반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조선사회에서 향통사로 불리던 하세국의 위치는 신분으로나 출신지역으로나 내세울 것이 아

1) 17세기 초 명·청 교체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등을 참조.

2) 『선조실록』 212권 40년 6월 2일 기사. “備邊司啓曰…世國則 自乙未年 年年往來賊中 已至八巡 賞職守門將 天恩罔極 艱難土兵 長立戍邊 妻貢又爲備納 不勝其苦 今此論賞時 依申世恭例 得其妻免役帖 則天恩又爲罔極…云…”

무 것도 없는 태생적 주변인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하세국은 누르하치의 등장 이후 만포를 창구로 삼아 벌어진 조선과 建州女眞 사이의 거의 모든 교섭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특별한 외교 임무를 띠고 누르하치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했다. 조선 조정에서 정식 사절을 누르하치에게 파견할 때에도 하세국은 동행하여 회담 내용을 통역하고 막후 접촉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 1619년 조선의 요동 원정에 종군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된 후로부터 1621년에 석방되어 돌아올 때까지는 조선군 사령관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을 도와 2년이 넘도록 조선과 후금 사이의 외교 접촉 일선에서 활약했다.

이 논문에서는 일생의 상당 기간을 만주라는 공간에서 보낸 향통사 하세국을 중심인물로 삼아 미시사의 접근을 시도하되, 그를 통해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질서의 격변 과정에서 조선이 처해 있던 위상 및 그런 와중에서 조선 조정이 선택한 결정이 갖는 東亞史的 의미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임진전쟁(왜란) 중 河世國의 활동

하세국이 조선의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임진전쟁(1592~1598)이 소강상태에 있던 1695년 가을 무렵이었다. 1467년(세조13년)에 조선이 명과 합동으로 건주여진 원정을 감행하여 추장 李滿住를 살해한 이후로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는 단절되어, 전쟁 발발 때까지 약 120년 이상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소강상태에 있던 1595년 4월에 누르하치는 조선인 14명을 쇄환해 보내면서 서한을 보내왔으며, 7월에도 다시 편지를 보내 교섭 재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편지의 골자는 서로 국경을 침범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 왕래하며 우호관계를 맺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의 접근을 경계했다. 아직 남쪽에서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제의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특히 明軍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 금법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누루하치와 직접 교섭을 전개할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누루하치의 교섭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의 답신을 만포첨사의 이름으로 작성해 선물과 함께 보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산삼을 캐러 조선 영내로 잠입한 건주여진인들이 조선의 군민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진인 27명이 피살되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에도 조선의 국경 수비대는 무단 월경해 오는 여진인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누루하치가 먼저 월경 조선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상호 교섭을 제의해 온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살해당한 여진인의 수가 많은 탓에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실제로, 누르하치가 차관을 만포에 보내 정식으로 항의한 데 더해 건주여진이 조선을 보복 침범할 것이라는 첩보마저 들어와 긴장이 고조되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조선에서는 이 문제를 遼東都司에 알려 명의 宣諭를 통해 누루하치의 군사 행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요동도사에서는 변방 경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 조정은 당시 평양에 주둔하면서 조선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 胡大受에게 누루하치에게 변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선유해 줄 것을 부탁했고, 胡는 흔쾌히 응해 부관 余希元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余는 조선 왕이 결재한 선유문을 들고 만포에 도착한 후, 본인은 만포에 머물고 대신 자신의 家丁 楊大朝로 하여금 선유문을 전달하도록 했다.³⁾

이에, 楊과 하세국은 10월 18일에 만포를 출발해 누루하치의 도성인 피알라(佛阿拉)로 향했다.⁴⁾ 이때 조선인 일행은 모두 두 명이었는데, 실록에 하세국의 이름만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⁵⁾ 나머지 한 명은 하세국보다도

3) 이상, 임진전쟁 중에 돌연 발생한 누르하치와의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계승범, 2007a, 「임진왜란과 누르하치」, 정두희·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참조.

4)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0일 무자.

5) 『선조실록』 70권 28년 12월 6일 갑진. “移咨於協守副總兵府 其咨曰…本年十月十八日 差本

지위가 낮았거나 임무의 중요도가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원 구성은 당시 조선 조정이 누르하치를 얼마나 하대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피알라에 당도한 하세국과 楊은 한 명씩 따로 들어가 누르하치의 접견을 받았다. 楊이 먼저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拜禮를 했으며, 하세국이 이어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揖禮를 했다.⁶⁾ 누르하치가 조선국의 정식 관원도 아닌 일개 통사를 접견하면서 읍례만 받은 점은 그가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선유문이 지극히 위압적인 훈계로 가득 찼음에도, 누르하치는 문서를 받은 사실 자체에 크게 기뻐해 연일 잔치를 베풀어 이들을 환대했다. 특히 누르하치는 楊大朝를 배제한 채 하세국만 별도로 독대해, 특별히 소를 잡아 대접하는 것은 조선에서 자기에게 처음으로 차관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뜻을 전했다.⁷⁾

여기서 명을 통하지 않고 조선과 직접 교통하려는 누르하치의 의도와 하세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공식 접견을 마치고 누르하치가 특별히 하세국만 따로 불러들여 그를 특별 대우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조선과 직접 통교하겠다는 누르하치의 의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세국 일행이 만포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余希元(한인)과 함께 머물고 있던 馬臣(여진인)이 余를 배제한 채 만포첨사(조선인)와 단독으로 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마신이 서신 교환과 서울 상경의 허용을 제안한 것은⁸⁾ 공식적으로 국교를 트자는 뜻이었다. 만포첨사가 명의 禁法을 들어 거절함으로써 당장 어떤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명을

鎮通事河洗國等二名 隨同遊擊府宣諭官家丁楊大朝 前往建州 密探本夷動靜去後 十一月初二日回….”

6)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0일 무자. “…老乙可赤常時所住之家 麾下四千餘名 佩劍衛立 而設坐交椅 唐官家丁先爲請入 拜辭而罷然後 世國亦爲請入 揖禮而出…” 한편, 拜는 대체로 揖보다 훨씬 더 경외감을 나타내는 절인데, 아마도 양대조가 행한 拜辭는 여러 배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하세국이 행한 읍례와 같은 급의 예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7)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0일 무자.

8)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0일 무자 ; 70권 28년 12월 5일 계묘.

제외하고 조선과 직접 교통하려는 누르하치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누르하치는 余希元 앞으로 답서를 써주었는데, 이는 선유문이 余希元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주 내용은 무단 월경한 여진인들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조선과는 원한을 맺을 일이 없다는 것과 자신의 충순함을 북경에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⁹⁾ 그런데 이 답서는 하세국이 수령해 조선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이는 누르하치가 이번 사절단의 파견 주체를 조선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하세국과 특별 독대를 가진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당시 누르하치가 조선과 국교 재개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던 점과 이를 위한 대화창구로 하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세국이 누르하치의 친서를 받아 만포로 돌아오자, 조선 조정은 胡大受로 하여금 긍정적인 답신을 조속히 쓰게 함으로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胡가 부관 余希元의 귀환 보고를 직접 들은 연후에야 답신을 작성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시일이 지체되자, 독자적으로 만포 첨사 명의의 답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차관은 申忠—(1554~1622)로 결정하고, 그에게 임시로 만포군관의 직임을 주어 누르하치를 만나 답신을 전하도록 했다.¹⁰⁾

신충일은 12월 22일에 통사 羅世弘과 하세국 등을 대동하고 건주여진 경내로 들어간 후 12월 28일부터 이듬해(1596년) 1월 5일까지 피얼라에 머물며 큰 환대를 받았다. 이때 신충일 일행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신충일의 수행원으로 향통사와 노비들의 이름만 나오는 점으로¹¹⁾ 보아, 정

9)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16일 갑신.

10)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3일 신묘. 신충일은 무과 출신으로, 당시 南部主簿(중6품)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 신충일의 관직 경력에 대해서는 李仁榮, 1998, 『申忠—의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여』, 김성준 편, 『鶴山李仁榮全集』4 國學資料院, 161~171쪽(재수록) 참조.

11) 『建州紀程圖記』 178쪽. “…二十二日朝…臣與鄉通事羅世弘河世國 鑣奴姜守及臣奴春起等 一並晌午離滿浦 水渡鴨綠江 前向奴酋家進發…” 『건주기정도기』는 신충일이 귀국하자마자 엮어 올린 보고서로, 이 논문에서는 진단학회, 1939, 『震檀學報』10, 169~193쪽에 실린 자료를 참고했다. 단, 진단학보에는 178쪽이어야 할 곳이 170쪽으로 잘못 나와 있다. 한편, 지도를 제외한 설명문은 『선조실록』(71권 29년 1월 30일 정유)에도 실려 있는데, 소소한

식 관원은 신충일 혼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향통사 내지는 짐꾼으로 동원된 노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누르하치가 직접 중문 밖에까지 나와 조선 사절단을 맞이하고 서로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신충일의 좌우에 각기 통사 나세홍과 하세국이 시립한¹²⁾ 점을 고려하면, 두 통사가 사실상 신충일의 좌우 보좌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에 나세홍의 이름이 하세국보다 항상 앞서 나오는 점 및 누르하치가 신충일 일행에게 준 상물을 나눌 때 하세국보다 나세홍이 더 많이 취한¹³⁾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향통사라 해도 하세국은 나세홍보다 하위에 처했던 것 같다. 다만, 신충일의 파견을 앞두고 조정에서 벌어진 논의에서 늘 하세국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¹⁴⁾ 점을 고려하면, 통역과 실질적인 실무 교섭 자리에는 하세국을 내세웠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다.

어쨌든 이때 신충일이 전달한 답신의 골자는 여진인 살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관을 이미 문책 인사 조치했음을 알리고, 앞으로는 명의 금법을 준수하여 서로 자국민의 무단 월경을 철저히 단속하자는 것이었다.¹⁵⁾ 신충일이 하세국을 통사로 입회시키고 누르하치의 부관들과 가졌던 여러 차례 회담 내용은 당시 건주여진과 조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회담에서 건주여진 측은 우호 관계의 체결, 조선의 직첩 제수, 서울 상경 허용 등을 제안했는데, 이는 곧 정식 국교를 트자는 의미였다. 특히 쇄환에 대한 답례로 상물보다도 직첩의 제수를 원하는 점은¹⁶⁾ 당시 누르하치의 주 관심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진단학보』에 실린 『건주기정도기』는 신충일의 후손들이 소장해 오던 것으로, 조정에 올려 『선조실록』에 기록된 提出本의 저본이므로 사료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주기정도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인영, 1998, 앞의 논문 참조.

- 12) 『건주기정도기』 180쪽. “…二十八日未時…少頃 奴酋出中門外 請臣相見 臣立於奴酋前 羅世弘河世國立於臣左右差後 行相見禮…”
- 13) 『건주기정도기』 183~184쪽. “…初五日朝 歪乃持回帖 與黑段圓領三件 貂皮六令 藍布四疋 綿布四疋而來 臣與羅世弘河世國各一件 貂皮則臣與羅世弘各三令 布疋分與姜守春起 小酋亦送黑段圓領三件 黑靴精具三件 于臣與羅世弘河世國…”
- 14)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3일 신묘.
- 15)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3일 신묘.
- 16) 『건주기정도기』 184쪽. “…馬臣回言 王子云 刷選之報 不要他物 只要除職 若朝鮮除職 則賞

무엇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만포에서의 교역을 허락받는 것보다 상경 허락에 더 우선순위를 둔 점도¹⁷⁾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충일은 관직 제수 건은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답을 피했으며,¹⁸⁾ 상경 건에 대해서는 명의 금법이 지엄함을 들어 사실상 불가함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다.¹⁹⁾

그럼에도 누루하치는 매일 연회를 베풀어 신충일 일행을 대접하고 푸짐한 상물을 주었는데, 이는 조선의 공식 서신을 받은 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신충일을 접견한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 후에 누루하치가 처음 물어본 말이 바로 서신의 휴대 여부였던 점²⁰⁾ 당시 누루하치의 관심이 문서 왕래를 통해 조선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데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누루하치는 자신의 일차 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²¹⁾

누루하치의 이런 태도는 그가 당시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선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간다면 오히려 조선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명과 조선이 합세해 건주여진을 압박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당장 조선을 침공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배후에 있는 海西女眞의 동태뿐만 아니라 명의 참전 가능성은 누루하치에게 늘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 누루하치는 군사력 비교에서도 큰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 중 신충일에게 降倭와 조충의 위력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점,²²⁾ 신충일 일행이 다녀간 지 두 달 후에 만포에서 조선의 銃筒을 구입하려 한 점,²³⁾ 요동으로부터도 총통을 입수해보려고 누차 시도한 점²⁴⁾

之以一尺之布 猶可受也 如不得除職 賞之以金帛 而不願也….”

17) 『건주기정도기』. 185쪽. “…汝乙古言馬臣曰 欲將熊皮鹿皮賣於滿浦 買牛畊田…馬臣入告于奴酋 奴酋曰 朝鮮不許上京之前 你等決不可徑往滿浦賣買云.”

18) 『건주기정도기』 184쪽.

19) 『건주기정도기』 190쪽.

20) 『건주기정도기』 180쪽.

21) 조선과의 통교를 갈망한 누루하치의 의도에 대하여 신충일은 명 및 조선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여진 부족들을 위압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건주기정도기』 184쪽. “…觀其意 欲以與上國及我國結好之意 誇示胡人 威服諸部也…”

22) 『건주기정도기』 190쪽.

23) 『선조실록』 73권 29년 3월 2일 기사.

등은 그가 조총의 성능과 조선군의 화력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막상 자신은 그런 화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선에서 조선과의 긴장을 완화한 것은 당시 누르하치로서는 최선의 결과였으며, 조선으로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였다.

이렇듯 신충일의 임무는 일단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후의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향통사 하세국은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다. 하세국이 楊大朝와 함께 선유문을 가지고 누르하치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明 軍官 余希元은 만포에 머물며 누르하치의 차관인 馬臣과 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그때 마신의 집요한 상물 요구에 못 이겨 자신이 요동에 주선해 상물을 가지고 누르하치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다.²⁵⁾ 이 약속대로 여희원은 1596년 초에 撫順으로부터 叆州를 방문했는데, 이때 하세국 등 조선인 두 명을 대동한 점으로 보아,²⁶⁾ 하세국은 아마도 余를 따라 요동까지 갔던 것 같다.

여희원과 함께 만포로 돌아오자마자 하세국은 그의 3차 叆州 방문에 대해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신충일 일행을 맞을 때와는 달리, 여희원 일행을 맞이함에 있어 누르하치는 騎步 9,200명을 포열시켜 위압감을 한껏 고조시켰으며, 회담 중에도 시종토록 그런 분위기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하세국은 자신이 목도한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한 후에, 여희원의 인물됨과 성향으로 보아 그가 조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보고를 올렸다.²⁷⁾ 이는 당시 하세국이 첩보(수집한 내용)를 정보(첩보를 분석한 내용)로 바꾸는 역할

24) 『건국기정도기』 189쪽. “...唐通事云 奴曾每請銃筒於遼東 而不許云...”

25) 『선조실록』 70권 28년 12월 5일 계묘.

26) 淸太祖實錄의 여러 異本 병신년(1596) 2월 條에 “大明遣官一員 高麗國亦遣官二員 從者共二百人來…….”(『太祖武皇帝實錄』 1 : 11b)라는 기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續修四庫全書』 368,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에 수록된 『太祖武皇帝實錄』을 참고했다. 이 기록에 余希元과 하세국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기록에 보이는 ‘一員’은 날짜와 정황으로 볼 때 여희원이 분명하다. 또한, 『선조실록』(72권 29년 2월 29일 병인) 기사의 내용이 이때 余希元을 대동한 하세국의 귀환 보고임을 감안하면, 위 기사에 나오는 ‘二員’ 가운데 한 명은 하세국이 분명하다.

27) 『선조실록』 72권 29년 2월 29일 병인.

까지 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당시 실록 기사들을 보면,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하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세국은 요동의 정세까지도 탐문해 보고하곤 했다. 당시 조선 조정이 하세국을 통하지 않고 누르하치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입수한 대표적인 사례는 신충일이 피알라를 방문한 뒤 귀환해 작성해 올린 『건주기정도기』인데, 그 내용은 매우 상세하지만, 그 골자는 하세국이 선유문을 전달하기 위해 피알라를 방문한 뒤 귀환해 올린 최초의 보고서 내용과²⁸⁾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듯 임진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조선과 건주여진 사이의 외교 접촉에서 하세국이 담당한 역할은 지대했다. 또한 이후에도 건주여진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처리와 정탐의 임무를 띠고 피알라에 자주 왕래해, 1595년부터 1607년 사이에 모두 8차례나 건주여진을 다녀왔다.²⁹⁾ 그렇지만 이에 대해 조정이 내린 상급은 그다지 후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세국이 누르하치에게 선유문을 전달하는 중대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건주여진의 동태까지 상세히 수집해 왔을 때, 조정에서 그에게 말과 의복을 하사한 기록이³⁰⁾ 하나 보일 뿐이다.

또한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각주 29에 인용된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따르면 하세국은 수문장의 직책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하세국 스스로도 호소했듯이(같은 자료 다른 밑줄, 1595년(을미년) 이래 8차례나 피알라를 왕래하며 對건주여진 외교를 일선에서 사실상 전담했음에도, 본인은 만포의 土兵으로서 군역을 지고 있었으며, 아내는 여전히 관비로서 身貢을 부

28)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20일 무자.

29) 『선조실록』 212권 40년 6월 2일 계사. “備邊司啓曰 今此平安兵使上送 滿浦譯學訓導方應斗 鄉通事河世國 土兵李奉守等 呈訴于本司曰 … 世國則 ‘自乙未年 年年往來賊中 已至八巡 賞職守門將 天恩罔極 艱難土兵 長立成邊 妻貢又爲備納 不勝其苦 今此論賞時 依申世恭例 得其妻免役帖 則天恩又爲罔極 且欲得長片箭弓劍 以備戰用’ 云 … 河世國雖以申世恭妻免賤之事 援例陳訴 此則其時出於特命 亦難據而爲例 而邊上之人陳訴如此 不得不達 如長片箭劍 則令該曹題給… 敢啓 傳曰 竝依其所願加賞”

30) 『선조실록』 69권 28년 11월 18일 병술.

담하고 있었다. 결국 아내의 免賤을 얻어내기는 했으나, 이 과정에서 조정은 어떤 적극성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3. 深河 패전(1619.3) 이후 河世國의 활동

하세국의 아내가 면천된 지 몇 개월 후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1608~1623)이 즉위했다. 주지하듯이, 광해군 재위 마지막 5년(1618~1622)은 ‘요동전쟁’으로³¹⁾ 말미암아 명·조선·후금 사이에 숨 가쁜 외교전이 전개된 시기였다. 이에 하세국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었다. 외교의 일선에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외교 창구 역할을 한 장본인은 여전히 하세국이었던 때문이다.

요동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하세국의 임무는 이전과 비슷했던 것 같다. 만포에서 여전히 향동사로 근무하며, 늘 후금(1615년까지는 建州)과의 접촉 일선에 있었다. 후금의 차관들은 만포에 도착하면 의례히 하세국을 찾았고, 만포참사 또한 의례히 하세국을 내보내 그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탐문하곤 했다. 후금의 동태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세국이 직접 후금에 들어가 탐문하곤 했다.³²⁾ 이런 임무 수행 중에 하세국은 후금에 억

31) ‘요동전쟁’이란 1618년부터 1622년까지 전개된 후금의 요동 장악 과정을 한 시기로 묶기 위해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후금의 요동 장악은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만, 아직까지 이 전쟁을 특별히 가리키는 용어가 없어 불편했다. 대개 ‘入關前’이라는 큰 시기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명·조선의 후금 원정이 참패로 끝나는 사르허 전투(1819)에만 주목했다. 그러나 요동을 둘러싼 전쟁이 5년간 지속된 점, 이 기간 중에 벌어진 숭한 전투들 가운데 하나인 사르허 전투가 이 5년간의 시기를 총괄하여 대표할 수 없는 점, 1623년부터는 후금이 잠시 팽창을 멈춘 점, 이후의 전투는 대개 요서 지역에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7세기 전반 후금의 요동 장악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과정을 ‘요동전쟁’이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조선 입장에서 보아도, 광해군 대를 수놓은 치열한 외교 노선 논쟁 기간은 바로 이 ‘요동전쟁’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32) 『광해군일기』 7권 즉위년 8월 30일 갑신 ; 112권 9년 2월 13일 무진 ; 128권 10년 5월 29일 병진.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모두 中草本(태백산사고본)이다.

류되었다가 풀려난 적도 있었다.³³⁾ 관련 기록이 없어 그 전말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1607년부터 1613년 사이에 두만강 북쪽 일대에서 후금(건주여진)과 烏拉(해서여진)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빈번했던³⁴⁾ 점과 실록에서도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그는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후금에 들어갔다가 의심을 받아 체포, 억류, 석방의 수순을 밟아 풀려나온 듯하다.

하세국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계기는 역시 ‘요동전쟁’의 발발이었다. 1618년 봄에 후금이 명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撫順을 점령하자 명은 대규모 원정군을 결성했고, 조선에게도 군대를 보내 이 원정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조선 조정은 술한 논란 끝에 결국 姜弘立이 이끄는 13,000 병력을 출정시켰다.³⁵⁾ 이 원정군에는 하세국도 포함되었다. 그는 도원수 강홍립이 이끄는 中營 가운데 부원수 金景瑞 휘하 嚮導將으로 배속되어 土兵 80명을 통솔했는데,³⁶⁾ 아마도 통사 역할과 함께 길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명의 원정군은 며칠 만에 궤멸되었다. 東路軍에 배속되어 있던 조선군도 左右營이 모두 궤멸되었고, 도원수 강홍립이 직접 이끌던 中營은 후금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몇 차례의 교신을 주고받은 뒤에 곧 투항했다.³⁷⁾

한편, 하세국은 이 전투 현장에 없었다. 전투 닷새 전에 劉綎은 강홍립과 작전을 의논한 후, 明人 통사 1명과 조선인 통사 2인(하세국·金彥春)을 차출

33) 『광해군일기』41권 3년 5월 22일 신유.

34) 계승범, 2007a, 앞의 논문, 383~384쪽.

35) 출병 여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165~175쪽 참조.

36) 『紫巖集』 5권 「柵中日記」 3a. “...嚮導將河瑞國 領土兵八十名 以上 屬於副元帥幕下...” 이 문에서는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82권에 있는 『紫巖集』을 참고했다. 이하 「책중일기」로 표기함. 「책중일기」는 강홍립의 종사관으로 출정했다가 포로가 된 李民奭(1573~1649)이 억류 중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37) 『太祖高皇帝實錄』 6 : 13a~14b. 한편, 교섭 및 투항 과정은 「책중일기」(10b~14a)에 더 자세히 다. 단, 청의 실록은 강홍립이 먼저 通事를 통해 싸울 뜻이 없음을 알렸다고 했으나 (6 : 13b), 李民奭은 「책중일기」(10b)에서 후금 쪽에서 조선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싸우지 말자는 전갈을 먼저 보내왔다고 기록했다.

해 후금에 보냈는데, 도중에 후금군을 만나 길이 막히자 明人은 되돌아갔으나, 하세국과 김언춘은 계속 나아갔다.³⁸⁾ 그러나 곧 피알라에 억류되었다가, 동로군이 궤멸되자 석방되어 조선군과의 소통에 투입되었다.³⁹⁾ 이때 후금 내부에서는 온건파가 우세해 국서와 함께 조선군 포로 5명을 석방해 보냈는데, 하세국은 장교 4명과 함께 이에 포함되어 만포에 돌아왔다.⁴⁰⁾

‘後金國汗書達朝鮮國王’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국서에서 누르하치는 명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 파병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으며, 金(1115~1234)과 고려의 우호 관계를 예로 들어 후금과 조선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늘의 뜻을 저버린 명을 응징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이 제의에 대한 조선 국왕의 뜻을 국서로 알려달라고 했다.⁴¹⁾

이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조선 조정의 의견은 둘로 갈라져, 광해군과 비변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광해군의 골자는 우호적인 답서를 즉각 보내 후금의 보복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던 데 반해, 비변사의 골자는 강홍립의 항복으로 인해 명이 조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후금과 더 이상의 접촉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⁴²⁾ 약 두 달에 걸친 논쟁과 타협 끝에 절충적인 답서를 작성해 하세국 편에 보냈으나, 이 답서는 광해군과 비변사뿐만 아니라 명과 후금 등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의심만 더 커지게 했다. 후금은 후금대로 조선의 애매모호한 답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으며, 명은 명대로 조선이 후금과 서신을 주고

38) 『책중일기』 6ab. “...元帥見提督密議…提督深以爲然 差票下一人 偕通事河瑞國金彥春持諭檄略曰 我有七種火器 汝不可當 須速來降云 入送虜中 使之開諭偵探 而唐差則行未十里 遇賊退走 瑞國等持檄文前往.”

39) 『책중일기』 6ab. “河瑞國自奴城來言 當初到奴城 渠則囚獄 彥春則縛送于奴酋所往處…事無可爲 遂傳提督檄文 仍權辭以言曰 我國與爾自前無怨 今者出兵 本非我國之意 若干軍卒 當在唐陣之後云云 東路陷沒後 始放瑞國送來云云”

40) 『책중일기』 16a ; 『尊周彙編』(『朝鮮事大斥邪關係資料集』, 여강출판사, 1985), 1권 39~40쪽.

41) 『고황제실록』 6 : 15b~17a ; 『존주위편』 1권 40~41쪽.

42)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계승범, 2005, 『조선간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朝鮮時代史學報』 34 참조.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긴장하며 조선을 의심했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의 답서를 받은 후금 지도부는 매우 분노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조선의 답서에 우호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고,⁴³⁾ 信物도 전혀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⁴⁾ 이에,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강홍립이 나서서 답서의 내용을 자세히 풀이해 줌으로써 누르하치의 진노를 다소 누그러뜨리기는 했지만, 진정한 해명이라기보다는 한문으로 작성된 외교 문서에 능통하지 못한 후금 지도부의 약점을 이용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⁴⁵⁾

이런 까닭에, 후금이 조선에 보낸 두 번째 국서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고압적으로 조선에게 양자택일을 재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명을 택할 것인지 후금을 택할 것인지 조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후금을 택한다면 소와 말을 잡아 하늘과 땅에 함께 제사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분명히 공식화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답신은 御印이 찍힌 국서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⁴⁶⁾

이 국서가 도착하자, 광해군과 비변사가 의견을 절충할 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비변사가 끝까지 답서 작성을 거부하고 차라리 전쟁 준비를 하자면서 강력하게 버티는 바람에, 답신조차 보낼 수 없었다. 이에, 광해군이 만포첨사를 직접 파견해 구두로라도 우호적인 답변을 하자는 절충안을 내었으나, 구두 답변을 할 경우에도 통사의 파견만으로 충분하다는 비변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렇듯, 서신은커녕 구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8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이듬해(1620년) 3월에 세 번째 후

43) 『책중일기』 18a. “二十七日 奴酋令參加里大海劉海等 延差官於中路 出見文書 因騰錄以來 而文書若好則推牛設宴以待 若不好則只供鷄鴨云 日暮 劉海始回 使人問之 答曰 文書 無一句好話…”

44) 『책중일기』 19b. “…奴酋諸子 皆以爲朝鮮之於南朝 自謂有同父子 且無信物 其不欲相和可知…”

45) 『책중일기』 18a~19b. 한편, 강홍립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윤수, 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東方學志』123, 44~46쪽 참조.

46) 『책중일기』 21ab ; 『광해군일기』 142권 11년 7월 14일 을미.

금의 국서를 받게 되었다.⁴⁷⁾

한편, 7월 초에 보낸 2차 국서에도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답신이 없자, 후금 내에서는 조선에 대한 강경론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⁴⁸⁾ 또한 北關을 점령할 때 붙잡힌 漢人 포로들이 조선군이 요동에 와 있다고 진술하자, 후금 지도부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조선의 회신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자 만포에 갔다가 돌아온 하세국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목숨을 걸고 단언함으로써⁴⁹⁾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된 후금과 조선의 긴장 국면은 계속되었다.

11월까지도 아무런 답신이 없자, 누르하치는 조선에서 과연 차관을 파견해 답신을 전할 것인지 여부 및 조선군이 요동에 와 있다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오라는 임무를 주어 하세국을 다시 만포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기 측근인 小農耳로 하여금 하세국과 동행하도록 명했다.⁵⁰⁾ 소농이와 하세국이 떠난 후에도, 억류되어 있던 조선군 포로들이 연이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강경론자들은 조선인 포로들을 모두 죽이자면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온건론자들은 소농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다.⁵¹⁾ 그런데 이들의 귀환 보고는 온건론자들의 입지를 넓혀주었다. 즉 만포의 접대가 예전보다 훨씬 더 후했고, 조선군의 요동 파병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 때문이었다. 소농이의 입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한 누르하치는 크게 기뻐했고,⁵²⁾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었다. 또한, 달포 후에 조선으로부터 포목·종이·소금 등 후금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대거 도착하고, 조선이 명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자, 누르하치는 만족해서, 답서가 없는 것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태도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⁵³⁾

47) 이 논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계승범, 2005, 앞의 논문 참조.

48) 『광해군일기』 147권 11월 12일 17일 병인 ; 『책중일기』 19b~20a, 24b.

49) 『책중일기』 22ab.

50) 『책중일기』 24b~25a.

51) 『책중일기』 25ab.

52) 『책중일기』 25b.

그런데 물품을 운반해 온 하세국 일행의 몸을 수색할 때 해독하기 어려운 언문 편지가 나오자, 누르하치의 의심은 다시 불거졌다. 실제로 누르하치는 하세국이 너무 늦게 돌아온 이유를 요동을 경유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를 구금함으로써 그가 조선군 포로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⁵⁴⁾ 이후로도 조선이 요동을 도울지도 모른다는 누르하치의 의심은 계속되었는데, 이런 의심이 결정적으로 풀린 계기는 후금으로 투항해 온 요동인 두 명을 엄히 심문하여 조선군이 명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었다.⁵⁵⁾

후금의 3차 국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송되었고, 그 골자는 역시 조선의 입장을 국서의 형식으로 회답해 달라는 것이었다.⁵⁶⁾ 이번에도 후금의 국서를 조선에 전달한 사람은 하세국이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만포에만 전하지 않고, 하세국이 직접 국서를 휴대하고 서울까지 入京했다.⁵⁷⁾ 이는 이 3차 국서와 하세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음을 시사해 준다.

이 3차 국서를 놓고도 조선 조정은 답신 여부, 답신의 내용, 답신의 방법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광해군과 비변사가 타협하여 구두 답신을 하게 되었다.⁵⁸⁾ 이때에도 조선의 구두 답신을 외어서 누르하치에게 전한 장본인은 역시 하세국이었다. 하세국을 통한 구두 답신의 골자는 지난번에 소금과 식량을 보내준 것으로 인해 요동(명)의 의심을 사 현재 명의 관원들이 강변을 감시하고 있으니 서신으로 회답하기 어렵다는 것과, 후금이 언급하지 않은 조선군 포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후금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몇몇 여진인 남녀가 조선으로 도주해 왔지만 후금과의 돈독한 관계를 고려해 그들을 송환한다는⁵⁹⁾ 것이었다.

53) 『책중일기』 26a.

54) 『책중일기』 26a~27a.

55) 『책중일기』 28a.

56) 『책중일기』 28b ; 『광해군일기』 150권 12년 3월 4일 임오.

57) 『광해군일기』 150권 12년 3월 8일 병술.

58) 『광해군일기』 150권 12년 3월 4일 임오 ; 22일 경자 ; 24일 임인 ; 25일 계묘 ; 151권 12년 4월 15일 임술.

이에 대한 답례로, 후금도 조선군 포로 중에서 3명의 장교 등 모두 10명을 추가로 송환했다.⁶⁰⁾ 결과적으로, 조선에서 여진인을 송환한 것은 조선이 명의 지원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누르하치의 의심을 푸는 데 일조했다.⁶¹⁾ 실제로, 바로 이후부터 누르하치는 瀋陽에 대한 대공세를 시작했는데,⁶²⁾ 이는 요동에 대한 총공세를 앞두고 누르하치가 조선의 참전 가능성 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잘 보여준다.

조선과 후금 사이의 이런 접촉은 양국 사이의 긴장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다. 비록 국서의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에서는 광해군의 주도 하에 푸짐한 물품을 보내고 來投한 여진인을 송환했고, 이에 대한 답으로 후금에서는 10명의 포로를 추가로 석방하는 등, 조선의 요동 파병으로 급속히 냉각되었던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소 벗어나게 되었다.

4. 후금의 요동 장악(1821.3) 이후의 정세와 하세국의 죽음

이런 살얼음 같은 긴장완화 국면은 이듬해(1621년) 초에 후금이 요동의 심장부인 遼陽과 瀋陽을 잇따라 함락하고⁶³⁾ 요동 지역을 거의 장악하게 되자 다시 급변했다. 특히 후금의 요동 장악으로 인해 명과 조선의 육상 교통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명과 조선의 위기의식은 매우 고조되었고, 후금의 태도는 더욱 고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누르하치는 곧바로 “滿州國汗致書朝鮮國王”으로 시작하는 국서를 조선에 보냈는데, 조선 왕을 가리켜 ‘너(汝,

59) 『책중일기』 29a~30b.

60) 『책중일기』 31a~32b. 강홍립의 종사관이자 『책중일기』의 저자인 이민환도 이때 석방되어 귀환했다.

61) 『책중일기』 30a.

62) 『책중일기』 30a~31a.

63) 후금의 遼·瀋 공략 과정에 대해서는 『고황제실록』 7 : 52b~55b 天命 6년 3월 기사에 자세히 다룬다.

爾’라고 하대했다. 주요 내용은 요동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난민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⁶⁴⁾ 약 두 달 후에 국서를 다시 보냈는데, 예전과는 달리 황제만 쓸 수 있는 ‘詔’라는 표현을 썼으며,⁶⁵⁾ 특히 만포가 아닌 義州에 도착해 국서를 전달하려 했다.⁶⁶⁾ 이는 이제 후금이 명을 대신하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였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 동안 명과의 교통은 의주를 통하고, 후금과의 교통은 만포와 회령을 통해서만 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조선 조정은 후금의 국서에 답을 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의주에 도착한 후금의 조서”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을 받는 것 자체로 對明事大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점은 논쟁의 성격이 이전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더하여, 요동 난민들의 조선 유입과 毛文龍(1576~1629)의 등장은 조선과 후금 사이의 긴장 국면을 거의 극한으로까지 내몰았다. 실제로, 후금이 조선 내 모문룡의 존재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의 제거를 꾀함에 따라, 후금의 조선 침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모문룡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조선이 명을 도와 후금에 대적하겠다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누르하치의 ‘조서’에 대한 답신 여부 문제로 극한 대립을 벌이던 광해군과 신료들 간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광해군이 모문룡에게서 나라의 화근이 될 위험성을 본 데 반해, 비변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신료들은 후금의 배후를 견제할 잠재력이자 후금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줄 방과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⁶⁷⁾

이렇듯, 요동 정세의 변화는 조선 조정의 고민과 갈등을 극한으로 증폭시

64) 『무황제실록』 3 : 14b. 한편 『靑太祖實錄』에는 여러 본이 있는데, 滿州國汗을 滿州皇帝로 기록한 본도 있다(『고황제실록』 7 : 22b, 6년 3월 계해).

65) 『광해군일기』 166권 13년 6월 1일 신미.

66) 『광해군일기』 166권 13년 6월 19일 기축.

67)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2007b,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歷史學報』 193에 상세하다.

켰다. 신료들은 당색을 초월해 한 목소리로 對후금 창구의 전면 폐쇄 및 모문룡(명)에 대한 적극 지지를 외쳤다. 반면에 광해군은 후금의 국서가 ‘조서’임을 알고서도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정식 관원으로 차관을 파견해 우호적으로 답할 것을 극력 주장했다. 이후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만포첨사(종4품) 鄭忠信(1576~1636)을 차관으로 보내 되, 서신을 휴대하지 않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최종 타협이 이루어졌다.

당시 후금은 조선과 정식으로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에서 후금이 원했던 것은 조선이 제안한 것처럼 명의 눈을 피해 “各保地界”하는 정도의 은밀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 후금과 조선의 우호관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었다. 명의 맹방이던 조선을 후금의 우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후방의 위협 요인을 제거할 뿐 아니라, 명을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금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에게 공개적인 맹약을 요구했다.

정충신과의 회담에서도 그런 의도는 그대로 드러났는데, 정충신이 광해군의 명을 따르지 않고 비변사의 의도를 따라 회담에 임한⁶⁸⁾ 결과, 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이는 당시의 국제 정세가 조선으로 하여금 이전처럼 눈치나 보게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담 내내 후금이 강조한 것도 조선으로 하여금 양자택일하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정충신의 답은 단연코 명을 택한다는 답이었다. 결국, 이 회담은 서로의 크나큰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정충신이 특별한 성과 없이 돌아오자, 광해군과 비변사의 대립은 점점 극

68) 정충신은 자신이 차관으로 결정되자, 만일 天朝 물래 후금에 들어가는 임무였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한 바 있으며, 『晩雲先生文集』 2 : 2b, 『韓國歷代文集叢書』 456, 경인문화사, 1999, 318쪽) 회담을 마치고 의주로 귀환한 뒤에는 곧바로 서울로 향하지 않고 압록강 어귀의 龍川에 먼저 들러 모문룡을 방문하고 후금을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다. 『만운선생문집』, 부록 4a, 442쪽) 이는 조선 조정 보다 명나라 장수에게 먼저 보고한 행위로, 그것을 당연시하였던 정충신과 조정 신료들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으로 치달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같은 해(1621년) 12월에 후금은 모문룡을 직접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강을 건너 조선 영내로 침입했다.⁶⁹⁾ 광해군의 특명에 따라 조선군이 대응하지 않자, 후금군도 漢人들만 공격하고 조선군과의 충돌 없이 사흘 만에 철수했지만, 모문룡이 살아남은 한인들을 규합해 기지를 재건함에 따라 조선과 후금의 긴장 국면은 여전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광해군은 거의 매일 조속한 답서 작성을 촉구했으나, 비변사의 비협조로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⁷⁰⁾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한 정세 속에서 하세국의 활약은 어떠했을까? 흥미롭게도, 후금이 요동을 장악한 1621년 3월 이후 전개된 급박한 상황을 전하는 여러 기록들에서 하세국의 이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누르하치의 등장 이후 25년 가까이 누구보다도 숨 가쁘게 후금(전주어진)과 조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던 하세국의 이름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더 빈번하게 거론될 법도 한데, 오히려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까지 직접 상경해 구두 답신을 지시받고, 1620년 5월에 다시 피알라에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직접 그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이후, 하세국의 이름은 기록에서 거의 사라진다. 다만 후금이 요동을 장악한 이후, 후금의 ‘조서’ 문제와 요동 난민 처리 문제 등으로 조선과 후금의 긴장이 극한으로 치달던 1621년 6월의 한 기사에 따르면, 비변사는 하세국으로부터 후금의 군사력과 廣寧 전투의 추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⁷¹⁾ 또한 이보다 약 8개월 후인 1622년 2월의 한 기사는 하세국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비변사가 요동의 상황과 광녕 전투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해준다.⁷²⁾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하세국

69) 『광해군일기』 172 : 10b, 13년 12월 무자.

70) 이상 네 문단의 내용은 계승범, 2007b, 앞의 논문 참조.

71) 『광해군일기』 166권 13년 6월 27일 정유. “都體察使朴承宗啓曰…或云 虜方有事于廣寧 何能分力於我 此如盲者之指路 聾者之聽樂 尤可哂也 河瑞國等說稱虜有八將 而每將統長甲軍 合計九萬 如李永芳所統 又不下萬餘今若抽出四五千鐵騎 窺覘昌朔之間 則孰能戰孰能守…”

72) 『광해군일기』 174권 14년 2월 17일 계미. “備邊司啓曰…榮五中男之言 一樣虜敗, 而傳報不同 必明知敵情然後 可爲應變之策 南香未及回來 瑞國尙無消息 此時邊慮 萬倍前日 一帶江流

은 구두 답신 전달을 계기로 후금의 요동 공략이 본격화되던 1620년 6월부터 주로 후금의 퍼알라에 머물면서 ‘조선의 후금 연락소’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각종 첩보를 수집해서 자신이 만포에 왕래할 때마다, 또는 다른 인편을 통해 조선에 제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조선 조정의 후금 관련 정보源이 거의 다 하세국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추론은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하세국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비변사의 보고가 있는 지 불과 열흘이 조금 지난 1622년 2월 말에 조선 조정은 하세국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⁷³⁾ 이 사건이 후금 측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탓에, 후금 지도부가 하세국을 언제, 왜 처형했는지 그 진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광해군일기』 正草本(정족산本)에 補添된 논평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세국의 처형 이유에 대해, 史官은 그가 말을 자꾸 바꾼 탓에 처형되었다는⁷⁴⁾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하세국이 말을 자꾸 바꾸었다는 기록을 당시의 정세와 관련해 살펴보면, 후금이 조선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모문룡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또한 이미 여러 차례 보낸 국서에 대해 답서를 조속히 보낼 것을 누차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변사의 반대로 인해) 조선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름대로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변명하던 하세국을 경고 및 분풀이 차원에서 처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적인 처형 이유는 하세국의 간첩 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그 내면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세국의 처형은 후금의 요동 장악 이후 조선의 계속되는 답서 기피와 모문룡의 등장 등을 계기로 해서 후금 지도부 안에서 강경론자들이 온건론자들을 누르고 주도권을 장악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622년에 들어서면서 후금의 태도는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세

何足恃乎...”

73) 『광해군일기』 174권 14년 2월 30일 병신. “都元帥韓浚謙馳啓 河瑞國等見殺事”

74) 『광해군일기』(정족산本) 176권 14년 4월 25일 경인. “傳曰 河瑞國等死於國事 無愧古人 而優恤之典 未見舉行 … 奴賊以瑞國反覆 殺之”

국의 처형 외에도, 후금의 호전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광해군의 재촉으로 파견된 朴葵英과 역관 黃連海 등이 후금에 연이어 억류되는가 하면,⁷⁵⁾ 마치 못해 만포첩사 정충신의 이름으로 보낸 서신을 누루하치의 부관이 임의로 찢어버리는 등,⁷⁶⁾ 양국 사이에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박규영은 심하의 패전으로 강홍립과 함께 포로가 되어 후금에 억류되어 있던 군관 朴蘭英의 아우로,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는 것에 후금이 의심을 품을 것을 우려한 광해군의 독촉으로 후금에 파견되었지만,⁷⁷⁾ 비변사의 반대로 서신을 휴대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그 자신마저 억류되었다.

특히 1621년 가을에 명 조정의 명을 받고 출발한 監軍御使가 1622년 3월에 병사 4,000을 이끌고 용천에 상륙해 모문룡 군사와 합세하고, 4월에 서울까지 방문한 상황은⁷⁸⁾ 후금 지도부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 그동안 조선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던 누르하치조차도 조선에 한층 더 분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세국이 2월 중에 처형되었음을 상기할 때, 監軍의 용천 상륙(3월), 박규영의 억류(4월), 감군의 서울 도착(4월), 서신을 찢은 행위(5월) 등 일련의 사건들이 1622년에 들어서며 연이어 발생한 정황의 연관성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실제로, 1622년에 들어서면서 후금의 대조선 태도가 매우 강경하게 바뀐 이유에 대해 광해군은 조선의 지속적인 답신 기피, 조선의 극진한 모문룡 접대, 감군이 이끄는 명 수군의 용천 상륙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⁷⁹⁾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후금의 요동 장악 이후 하세국의 이름이 각종 자료에서 뜸해지다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 이유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후금의 요동 장악 이전까지는 조선과 후금 사이에 비록 긴장이 조성되었을지라도,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타협이나

75) 『광해군일기』 177권 14년 5월 10일 을사.

76) 『광해군일기』 177권, 14년 5월 11일 병오.

77) 『광해군일기』(정족산본) 176권 14년 4월 16일 신사.

78)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2007b, 앞의 논문에 보다 상세하다.

79) 『광해군일기』 176권 14년 4월 16일 신사.

절충의 여지가 있었고, 따라서 하세국의 외교 활동도 상당히 빈번하면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세국이 조선의 정식 관원도 군관도 아닌 일개 향통사 신분으로, 피알라와 만포, 그리고 서울을 왕래하며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런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금이 요동을 장악함에 따라 명과 조선의 육상 교통로가 끊기고, 이를 계기로 후금이 이제부터는 “의주를 통해 조서”를 내리며 명을 대신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이중외교를 구사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광해군과 비변사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듯,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세국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후금이 서로 우호관계 유지에 더 주력하던 때에는 하세국도 서울(만포)과 피알라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아슬아슬하게나마 외교적 줄타기를 할 수 있었지만,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개 향통사인 하세국이 서울과 피알라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중간지대가 사라짐에 따라 ‘주변인’인 하세국의 활동 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하세국을 외교보다는 첩보수집 쪽으로 내몰았고, 점차 긴장이 고조되던 요동정세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하세국은 그만 후금에 의해 처형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 조선의 선택

지정학적으로 명(요동)과 후금(건주여진) 모두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조선은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미 16세기를 거치면서 강하게 형성된 조선 지배엘리트들의 대명사대관파⁸⁰⁾ 임진전쟁을 통해 형성된 再造之恩⁸¹⁾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전의 고려 때와는 달리, 조

80) 계승범, 2006, 「과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53.

선은 대륙의 정세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조선의 입장은 시종일관 親明事大라는 큰 틀 안에서 후금과 各保地界하는 차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금은 조선과 공개적인 우호조약의 체결을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을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과 후금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국가의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조선은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으로서는 특히 명의 눈을 피해 후금과 은밀하게 교통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일선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하세국이었다. 향통사였던 그는 대개 조선 조정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나, 단순한 꼭두각시는 아니었다. 임진전쟁 때부터 시작해 거의 4반세기에 이르도록 그는 만포와 𪎟알라를 숨 가쁘게 오가며 조선과 후금의 가교 역할을 도맡았다. 조선과 후금에서 하세국만큼 상대 국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와의 교섭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하세국에게 의존했으며, 누르하치조차도 조선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하세국을 창구로 삼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비변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후금 지도부의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마다, 하세국은 당당하고도 재치 있는 말 한 마디로 조선과 후금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일시적이거나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곤 했다. 특히 그가 직접 서울을 왕래하고, 조선의 구두 답신을 전달받아 누르하치에게 전한 점은 그의 역할이 마치 서울(광해군)과 𪎟알라(누르하치)를 연결하는 핫라인와도 같았음을 웅변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의 상경을 계기로 그에 대한 호칭이 향통사 또는 그냥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고, 河譯으로 불리기⁸²⁾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정식 역관으로 승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역할 비중이 매우 커졌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하세국이 후금의 요동 장악 이후 급변한 정세에 휩쓸려 후금에서 처형되었을 때, 조선 조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광

81) 한명기, 1999, 앞의 책, 67~88쪽.

82) 『광해군일기』 150권 12년 3월 24일 임인 ; 151권 12년 4월 15일.

해군이 홀로 나서서 국가를 위해 힘쓰다 죽은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고 했으나,⁸³⁾ 비변사는 이에 미온적이었다. 하세국의 처형에 대해 후금에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데에도 신료들은 반대했다. 온 신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광해군이 끝내 누르하치 앞으로 보낸 국서(답서)에 그나마 하세국의 이름 석 자라도 언급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 항의한 것도 실은 광해군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결과였다.

“朝鮮國王致書後金國汗殿下”로 시작하는⁸⁴⁾ 이 국서는 하세국이 죽은 지 대략 7개월 후인 1622년 9월에 발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먼저 이웃 간의 신의를 재차 강조한 뒤, 하세국 일행을 처형한 일과 박규영 등을 억류한 연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모문룡의 군사 행동은 조선 조정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니 그것으로 구실을 삼아 사단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후금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⁸⁵⁾

그러면 신료들은 왜 그렇게 하세국에 대한 처우에 인색했을까? 우선, 親明排金 노선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던 비변사 입장에서 볼 때, 하세국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주 후금을 오가며 후금과의 창구 역할을 하던 하세국을 싫어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심하 패전 직후 강홍립 등이 후금에 투항하게 된 경위를 놓고, 그것을 광해군의 密旨 때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던 점을 감안할 때, 그런 광해군의 의도를 최일선에서 매우 충실히 수행한 장본인으로 하세국이 지목되었고, 그로 인해 하세국에 대한 평이 안 좋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광해군의

83) 『광해군일기』(정족산본) 176권 14년 4월 25일 경인.

84) 『列朝統紀』 광해군 13년, 『順庵叢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0), 414쪽.

85) 『광해군일기』 181권, 14년 9월 1일 갑오. “…王遣文希賢報之其書曰 交隣之道 信義爲重 修好之誠 實在通譯 惟我兩國 本無讎怨 頃日河瑞國之行 遽見殺戮 我國猶不爲較 旋即送人在此 固無所失 而朴葵英 黃連海等相繼不返 抑又何意…語曰 修辭以禮 守國以義 茲遣專价 導達一二 尙冀思量 早報好音 ” 이 실록 기사는 『열조통기』의 기사와 일치하는데, 다만 ‘朝鮮國王致書後金國汗殿下’라는 첫 문장만 빠져있다. 아마도 실록 편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하다.

밀지 문제와 관련해 하세국의 역할을 전하는 기록들은 많다. 심지어 「책중일기」에도 그런 투의 서술이 보인다. 따라서 비록 그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당시 광해군의 정책에 쌍수로 반대하던 신료들이 광해군과 하세국을 한통속으로 보았을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 아마도 이런 점들 때문에 비변사에서는 하세국을 홀대했을 것이다.

서울까지 직접 다녀온 하세국으로서는 조선 조정이 후금의 답서에 미온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왕(광해군)이 고군분투하며 답서 작성에 적극적이었던 사실도 익히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深河의 원정 때부터 그는 광해군이 이 원정에 미온적이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후금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 했음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했기에, 갖가지(즉흥적인) 이유를 대면서 조선의 차관이 답서를 들고 곧 피알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누르하치를 설득하다가, 정세의 경색으로 인해 그만 간첩으로 몰려 처형대에 섰을 것이다.

하세국의 삶과 죽음은 명·청 교체기에 처한 1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처했던 상황과 현실을 매우 극명하고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의 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은⁸⁶⁾ 물론이거니와, 조선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국내외 정세의 격랑에 휩쓸려 하세국이 후금에서 죽음을 맞은 지 거의 꼭 일 년 뒤에 서울에서는 정변이 일어나 하세국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광해군이 정치적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⁸⁷⁾ 조선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광해군과 하세국은 국왕과 향통사라는 극과 극의 지위에 있었으나, 華夷論的 尊明義理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세습 양반엘리트들이 독점적으로 장악한 조선사회에서 후금과 대화를 추구한 그 둘은 영원한 주변인

86)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2008a,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명질서’의 균열」, 『한중관계 2000년 :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235~243쪽 참조.

87) 광해군의 몰락을 패륜이나 정쟁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이런 외교 문제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계승범, 2008b,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26 참조.

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의 눈동자라 할 수 있는 국왕의 공간인 편전조차 주변화되는(marginalized) 상황에서, 태생적 주변인인 하세국이 자신이 태어난 경계지역이라는 공간마저 상실한 채 제거된 것은 어쩌면 차라리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서로 비슷한 생각과 전략을 갖고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하세국은 후금 지도부(홍타이지가 이끄는 강경파)의 손에 의해, 광해군은 조선 신료들(주자학적 화이론자 강경파)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으로는 무엇이 일감으로 떠오를까? 조선의 새 인조 정권과 후금의 새 홍타이지 정권이 타협의 여지를 담고 있던 ‘경계적 공간’마저 부정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은 물리적 충돌 외에는 없었던 것 아닐까? 대조선 온건파였던 누르하치가 죽고 강경파 홍타이지가 즉위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정묘호란(1627)과 홍타이지가 親征한 병자호란(1636~1637)이야말로 제3의 옵션(대화를 통한 국교 정상화와 평화공존)을 거부한 두 나라 지도부, 즉 후금의 새 정권과 조선의 새 정권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점에서 볼 때, 하세국의 삶과 죽음은 조선(비변사와 주류 양반사회)의 선택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이후 숨가쁘게 급변할 조선·후금(청) 관계의 서막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계승범, 2005,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朝鮮時代史學報』34.
- 계승범, 2006,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53.
- 계승범, 2007a, 「임진왜란과 누르하치」 『임진왜란 :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 계승범, 2007b,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歷史學報』193.
- 계승범, 2008a,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명질서’의 균열」, 『한중관계 2000년 :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 계승범, 2008b,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26.
-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 고윤수, 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東方學志』12.
- 李仁榮, 1998,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여」, 김성준 편, 『鶴山李仁榮全集』4 國學資料院, 161~171쪽(재수록).
-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 Abstract ■

Jurchen Interpreter Ha Seguk : His Life and Death in Northeast Asia around the Turn of the 1600s

Kye, Seung-Bum

The rise of Nurhaci (1559~1626) in southern Manchuria around the turn of the 1600s was a prelude to the eventual Ming-Qing transition, or the Manchu conquest of China. Geopolitically located between Ming China and Nurhaci's Later Jin, Chosŏn Korea could not free itself from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powers. The Chosŏn court was divided into two different voices : the king wanted to save the situation by rejecting the Ming request for Korean troops and by communicating directly with Nurhaci, while his court officials were very eager to cut off ties with the Jurchen chieftain and line up more closely with the Ming. These opposing attitudes were irreconcilabl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s any friendly approaches to Nurhaci would inevitably undermine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the Ming : the Korean leadership had regarded the Ming as the ritual father as well as the suzerain and had secured their position under the Ming order for over 200 years.

In this pressing situation, the very person who distinguished himself in the front lines of the talks with Nurhaci was Ha Seguk (1575~1622), a man of low birth and a local interpreter of the Jurchen language. For about twenty-five years from the mid-1590s to the early 1620s, he traveled frequently back and forth between Fe Ala, the seat of Nurhaci, and Manp'o, a Korean border town through which the Korean authority contacted Nurhaci. Ha garnered enough of Nurhaci's confidence that he had special private audiences with Nurhaci several times. In early 1622, however, he fell victim to the suddenly increasing tension between the Chosŏn court and Nurhaci, with the result that he was eventually

executed in Fe Ala when Nurhaci vented his anger against Chosŏn.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Ha Seguk (1575-1622) in the diplomatic contacts between Chosŏn and Nurhaci,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s position vis-à-vis Ming China and Nurhaci's Later Jin in the early phase of the Manchu invasion of Ming China in the early 1600s.